

한국에서도 ‘담배’가 문제시 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점점 심각해지는 것 같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신경을 쓰게하는 것인지 저마다 의견이 다를 것입니다.

요즘 어디에서나 담배를 피우는 사람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전보다 담배 피우는 사람에 대한 인식이 바뀐 탓도 있겠고, 또 흡연을 자기의 자유, 또는 권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권리라고 하는 것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기가 지닌 자유로운 권리는 그 누구도 거기에 대해 참견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도 주위 사람에 대해 한 번쯤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주위 사람들에게 폐를 끼치는 것도 생각해서 배려하면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담배는 몸에 많은 영향을 끼칩니다. 거기에는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정신적으로는 스트레스를 해소하여 편안한 상태가 되도록 도와줍니다. 사람은 그림에 따라서 위안을 얻고 안정을 취합니다. 각성제임에 틀림없겠지요.

담배의 역할은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담배가 해롭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어린이, 젊은이, 임산부, 노인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많이 있습니다. 직접 피우지 않더라도 연기 만으로도 그렇습니다. 간접적인 피해가 더 무섭다고 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지금 우리들의 몸은 어디에나 노출되어 담배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가 없습니다. 자기의 의지가 아니라 주위로부터 무방비상태로 습격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은 커다란 문제임에 틀림없습니다. 신체 기능을 망가뜨리는 것은 반드시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공공 장소에서 담배를 피우는 자유 뿐만 아니라 담배 연기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싶은 것도 생각해 양쪽을 합칠 수 있도록 규칙을 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의 불만의 소리는 높아져 언제까지나 그 문제는 풀이지 않을 것입니다.